

현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터쇼 1위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는 <투싼 ix>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2013년 유럽지역 첫 국제 모터쇼인 브뤼셀 모터쇼에서 2013 퓨처오토(FuturAuto) 어워드 1위에 선정됐다고 1월11일 발표했다.

2013년 12회째인 <퓨처오토 어워드>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의 자동차 기자단(UJBA)이 매년 자동차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정해주는 상이다.



투싼ix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후보에 오른 16개 기술중 벤츠(Benz), 볼보(Volvo), 보쉬(Bosch) 등 글로벌 자동차·부품 관련기업들을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투싼ix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는 독자 개발한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과 700기압의 2탱크 수소저장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영하 20도 이하에서 저온 시동성을 확보하고 NEDC 유럽 연비 시험기준으로 100km를 주행하는데 0.96kg의 수소가 사용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갖추었다.

투싼ix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양산형 모델은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차량이며, 1회 수소 충전으로 최대 588km(NEDC 유럽 연비 시험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60km/h이다.

<화학저널 2013/01/11>